

경상대 체전, 총회, 해오름식

경상대 체전이 지난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소문점장과 대문점장, 학생회관 농구장에서 열렸다. 총목으로 발아구, 축구, 농구가 치러졌으며, 축구는 경대학과, 농구는 발아구는 무영학과가 각각 우승했고 종합우승도 무영학과가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한 과에는 선종기 등 과반에 필요한 물건이 지급됐다.

한편, 지난 8일(수)에는 아문관식당에서 경상대 총회 및 해오름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경대에 문예 경연 공연 △사회사 소개 △총학생회장 인사 △창년 소개 △장기학생총회 △소문점장회 공연 △체전 시상식 △빛돌이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는 총원 600명 중 120여명이 참여해 성사됐으며 △1학기 사업보고 △등록금 투쟁 현

재 상황보고 및 진행일정 △방정사업보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경상대 학생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정보학과 학생회장 마정훈(96)군은 '내대장님이 없어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웠지만, 과회님들이 많이 준비해주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다. 해오름식을 늦게 치렀지만, 모두 잘 모시고 사교없이 끝내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잘 다리와 주고, 많이 참여해 주어 고맙다'고 전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김은경(경상대 02)군은 "그 동안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없었는데, 함께 모여서 뒀던 다른 과 학생들과 술도 먹고, 공연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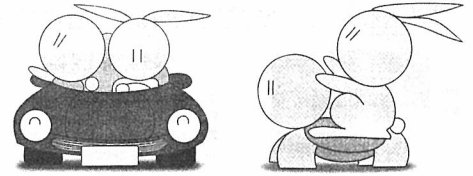
생활협동조합 상징 캐릭터 선정

용인배움터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협)에서 개최한 캐릭터 공모전에 응진진(자연·물리 97)군의 캐릭터가 선정됐다. 심사는 지난 4월 30일(화)에 생활협에서 생활협조합을 포함한 8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치러졌다.

생활협위원장 장유리(사류학·영어 01)장은 "그리고 생활(별주부전)에서 비롯한 대립적인 의미인 토끼와 거북이의 화합 및 협동을 생활협 조합과 잘 매치시켰으며, 캐릭터의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당선자 음군은 "평소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주 들리던 종이 이 행사를 알게 돼

참여했다"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2위에는 이승호(에니메이션)군이, 3위에는 박지호(자연·환경 96)군이 각각 선정됐다. 응진진의 캐릭터는 앞으로 생활의 마크로 사용된다.

한편, 생활협에서는 오는 14일(화) 용인배움터 후생복지관 앞에서 제 8회 '조합원 한마당'을 연다. 이 행사에서는 △조합원을 위한 경품대회 △시금치의 △각거리 행사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장유리장은 "많이 참여해 조합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도서관·교문 24시간 시험 개방

지난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서울 도서관과 교문을 24시간 임시 개방했다.

지난날 총학생회와 학교측의 협의하에 결정된 이 사업은 앞으로 도서관을 개방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과 학생들의 이용정도를 알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학교측에서 이전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12시 이후로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잠을 자는 학생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서관 경비를 맡고 있는 박성원

씨는 "학생들의 이용으로 지조할 뿐 아니라, 도난 문제의 경비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총학생회 사무국장 최인규(사회·신방96)군은 "일차적으로는 공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 학교측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개방여부는 오는 13일(월)에 총학생회와 총무처에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과 학생 시 문제점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범대학생회장 '반미반전' 단식돌입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4월 19일(금)부터 5월 18일(토)까지를 평화주간으로 정해 6·15 공동선언 이행을 목표로 반미·반전을 외치며 단식투쟁에 돌입하였다.

한총련은 "6·15 공동선언 이행은 반미·반전을 뛰어넘고 생각할 수 없다"며 "반미반전만 해 투쟁의 불길은 지쳐 흘러 이 땅에 평화화를 막아내고 6.15 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내자는 결심"이라고 단식투쟁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단식투쟁은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광

주전남총학생회연합 등 한총련 소속의 전국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우리학교 사범대 학생회장 나숙진(사범·한국어교육 96) 양도 5월 9일(목)부터 5월 18일(토)까지 단식을 결의하였다.

나숙진은 "반미·반전 의식 고취가 목표이지만

서울, '우리 하나되어' 영화제 개최

세계영화제준비위원회와 여학생위원회가 오는 14, 15일(수) 이틀간 서울배움터 411호에서 '우리 하나되어'라는 기치로 영화제를 연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때		상영 영화
14일	오후 1시	밴디트
	오후 3시	단편영화 굿 로맨스 삼, 히드 로맨스
	오후 5시 30분	배를 탄 천사의 시
15일	오후 5시 30분	고양이를 부탁해

독립영화축제한마당 '인디포럼 2002' 진행

인디포럼 2002가 오는 18일(토)부터 20일(일)까지 "꽃은이 활을 쏜다"라는 기치아래 세미네르코전용관(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문의 733-884)에서 개최된다.

7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독립영화, 그 경계의 모호함'이란 제목 아래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경계에 대한 메타포럼이, '기화에서 배급까지 디지털 영화 프로듀싱' 특강에 관한 기술포럼도 진행될 예정이다.

18일(토) 오후 7시에 '빛속의 휴식' (제기)이

개막작으로 상영되며 인디포럼2002 상영작가 인터뷰 및 상영작 클립 상영이 준비되어 있고 20일(일) 오후 8시에 '반미반전' (김국, 김신)이 폐막작으로 상영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와 관련 홍보팀장 오규미(영문)은 "독립영화기 쉬운 한국영화의 환경 속에서 대안적인 역할을 하는 독립영화가 일반 관객과 조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예인, 입학소송

지난해 2월 우리학교 입학자가 취소된 एस이애스(SES)의 '유' (본명 유수영)와 신하의 '앤디' (본명 이선호)씨가 우리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소송이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오는 10일 패소했다.

11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경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K의 국민학교는 연간 교육시간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국내 교사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고등교육법상 소정의 대학입학 자격이 없는 원고들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항선, 출소무산

지난 98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방북대표자적으로 방북했던 항선 출소가 무산됐다. 지난 7월 이적단체 7인과 이적보좌관을 제각각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5월 8일(수) 만 기소된 항선은 출소할 수 없다"며 "반미반전만 해 투쟁의 불길은 지쳐 흘러 이 땅에 평화화를 막아내고 6.15 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내자는 결심"이라고 단식투쟁의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항선은 출소할 주수(사망·스킨다리아어 98)라는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가 올바른 선행으로, 대안적인 선행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피임워크숍

성문체 상담실과 여학생위원회가 오는 14일(화) 오후 5시 서울배움터 사회과학관 307호에서 '준비된 자만이 성숙한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성교육 특강을 연다. 기동교정년(의)YMCA) 청소년 성문화센터 간사 박선영씨가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콘돔과 사후약의 올바른 사용법, 대학생들의 성의식 등에 대해 다룬다.

이번 워크숍을 준비한 주수(사망·스킨다리아어 98)라는 "우리 학교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인 만큼 의미가 크다"며 "이번 행사가 올바른 선행으로, 대안적인 선행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월문학 봄시화전

사월문학 '봄시화전'이 지난 7일(화)부터 10일(금)까지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9명의 학생이 준비해 18개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50여명이 관람했다. 이와 관련 한일문학(정보산업공·정보통신공 01)군은 "그만큼 잘 그리는 사람이 부족해 어려웠다"며 "시화전을 통해 민족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주진환(동문류·체코 97)은 "외대리 그런지 학생들이 여학생에 관심을 갖고 문학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관람객이 적어 아쉬웠다"고 밝혔다.

교생실습 한총련 대의원 연행

'연행되어도 아름다운 교단에 서겠다'며 교생실습을 해온 경복대 7기 한총련 대의원 김정희씨(사범대 국어교육과·95)가 지난 11일(토) 대구 보안사대 3대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복대 총학생회에 의하면 오늘 오후 12시 30분경 수업을 마치고 경복대 사대 부속 중학

교 앞에서 버스를 탄 김씨를 공사장 인부로 위장한 보안사대소속 형사 20여명이 기습봉쇄를 연행했다. 그는 9년 경복대 사범대 학생회소장직을 맡아 4년째 수업을 맡아온 김씨는 지난 달 29일부터 공개 교생 실습을 진행해왔다.

본행사에서는 △청량제 가요제 △동아리 공연 △초대대가수 박하요미 공연 △가요제 시상식

수요영화제 - '우리집'



'우리집' 수요영화제
매 - 5월 15일(수) 1회 : 3시 30분 2회 : 5시 30분
곳 - 용인배움터 후북관 4층 소극장

말레나 (Malena)

-이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그건 단지 아름다운 것인데

5/22에 대동제 관계로 없습니다.
▶지리정보-관현악(동문류·폴란드어 01)

문화캘린더

세	목	때	곳	내	용
서울	동기타전 정기연주회	5월 17일(금)	대학원 소극장(604)	윤도현 밴드, 자유열, 오프스프링 등의 곡 다수 연주, 오후 8시 1만 구내전회 499	
학외	해설이 있는 별	5월 18일 ~ 19일 (토)	조양아트홀	차이로프스키 일레 18일 - 오후 7시 1만 19일 - 오후 4시, 7시 1만	

서울배움터

구분	학 생					
요일		점심A	점심B	점심C	저녁	면
월 (13일)	오성아카데미 (W1,000)	산해비점심 (W1,400)	해정점심 (W1,500)	육개장 (W1,500)	김치밥 (W1,600)	남면 (W1,000)
화 (14일)	부자사랑 (W1,000)	삼미점심 (W1,500)	소고기비프스테이크 (W1,500)	순두부찌개 (W1,300)	소고기국밥 (W1,500)	스파게티 (W1,200)
수 (15일)	해운대점심 (W1,500)	복고점심 (W1,500)	비프라이드 (W1,500)	얼갈이국밥 (W1,500)	얼갈이국밥 (W1,500)	냉면만두국 (W1,200)
목 (16일)	북아문점 (W1,500)	단수점심 (W1,500)	아래점심/스스 (W1,400)	삼치점심 (W1,400)	닭국밥 (W1,400)	해장면 (W1,000)
금 (17일)	관악점 (W1,500)	모노점심 (W1,500)	마미점심 (W1,500)	삼계탕 (W1,500)	김치점심 (W1,500)	남면 (W1,000)

차량전복



지난 8일(수) 용인 승차장 진입로에서 두 대의 차가 충돌해 한 대가 앞수전으로 넘어졌다. 이 곳은 안전대가 없고 길가에 주차해 놓은 차들로 인해 사고가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타고 있던 6명은 모두 무사.

김민경 기자

용인배움터

구분	이 문 권			후 복 권		
요일	종식 1	종식2	분식	복합밥	달걀/양식	탕
월 (13일)	김치찌개왕밥 (W1,500)	참치왕밥 (W1,800)	튀김만두 (W1,200)	햄스테이크왕밥 (W1,500)	순살돈가스 (W2,000)	쇠고기찌개탕 (W1,800)
화 (14일)	바나나점심왕밥 (W1,500)	편육만두 (W1,800)	얼갈이국 (W1,200)	김치찌개왕밥 (W1,500)	튀김돈가스+피자 (W2,000)	떡볶이 (W1,800)
수 (15일)	중국산점심왕밥 (W1,500)	한식치킨 (W1,800)	비빔종류 (W1,200)	매이친왕밥 (W1,500)	생선찌개+떡볶이 (W1,500)	떡볶이+햄찌개 (W1,800)
목 (16일)	오징어국왕밥 (W1,500)	스파게티점식 (W2,000)	전지국 (W1,200)	떡볶이왕밥 (W1,500)	떡볶이+치킨+피자 (W2,000)	떡볶이 (W1,800)
금 (17일)	떡볶이왕밥 (W1,500)	떡볶이왕밥 (W1,800)	떡볶이 (W1,200)	떡볶이왕밥 (W1,500)	돈가스+떡볶이 (W1,800)	떡볶이 (W1,800)

2002년 1학기 FBS 외대교육방송국 라디오 방송편성표

서울	월	화	수	목	금
아침방송 (8:20 ~ 8:50)	아침의 산책 & Campus Network 30				
점심방송 (12:20 ~ 12:50)	영화는 음악과 함께하는 (25)	음악과 함께하는 (25)	Back to Black (25)	가치 (25)	Chart Syndrome (25)
오후 방송 (8:20 ~ 8:50)	아침의 산책	아침의 산책	아침의 산책	아침의 산책	아침의 산책
점심방송 (12:35 ~ 12:55)	태미가 있는 음악의 여행	FBS COLUMN	월드 뉴스 (25)	목요일 (25)	외대프로 438
오후 방송 (3:40 ~ 4:10)	20대에게 듣는 특집 (25)	가만 가만히	Welcom to Europe!	간담회 (25)	영고의 FBS



교수, “끄덕끄덕” 학생·직원, “설레설레”

서울 총학·외발추 주최 총장후보 초청 토론회

교수협의회 주최 1차 총장후보 초청토론회

서울매일 총학생회와 외대발간학생주최의 의결(외발주)가 주위의 충정후보 대청문회를 거쳐 지난 7월 6일에 서울매일 총학생회에 열렸다. 1부 외대원 힘으로의 대의원 시작으로 2부에서 총학생회장 인사말, 외부총학생회장의 초청토론회장의 의미 발언, 스포츠맨으로서의 유망성 이날 초청토론회장은 박철 교수와 유영지씨가 각각 발표에 주위를 하는 초청토론회장은 무모히었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문제교과가 경인 상류를 달며, 간담회, 원종 기, 이준은 교과가 정당한 참여자 제 진행했다. 그러나 안팎이 다른 것은 개인 이익을 이유로 초청토론회장을 자비를 받고 밖으로 치고 갔다.

외대원 힘으로의 대의원 시작으로 2부에서 총학생회장 인사말, 외부총학생회장의 초청토론회장의 의미 발언, 스포츠맨으로서의 유망성 이날 초청토론회장은 박철 교수와 유영지씨가 각각 발표에 주위를 하는 초청토론회장은 무모히었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이문제교과가 경인 상류를 달며, 간담회, 원종 기, 이준은 교과가 정당한 참여자 제 진행했다. 그러나 안팎이 다른 것은 개인 이익을 이유로 초청토론회장을 자비를 받고 밖으로 치고 갔다.

◎ 교협 1차 후보자 각 정책 비교

[illegible]

서울 배움터 총학생회, 위법후 주최 총장호의(호의, 토로인, 2000여명의 학생들로 대강당이 가득 차있음)

교수협의회 주최 1차 총장후보 초청 토론회, 총보부총 등으로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지 못했대

[illegible]

유니캠팩스 2002학년도	
히계 개입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안내	
1. 2002. 3월 개입학기 개설 계획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참조
2. 수업시간	2~3주시 (10:30 ~ 12:20), 점심시간 : (12:20 ~ 13:00) 4~5주시 (13:00 ~ 14:50, 6~7주시 : (15:00 ~ 16:50)
3. 수업기간 (2002. 6. 24일) ~ 2002. 7. 15일	[8월간 (토요일 수업 없음)]
4. 교과목 이수	가. 교육과정 발표 : 총 6과목 이내(교과 예정학기, 단기제내연수 포함) 나. 학점공인 : 2002학년도 제1학기에 실적조치필함
5. 등록금회 및 수업 납부	가. 등록금전 : 2002. 5. 13일(월) ~ 5. 24일(금) 09:00 ~ 16:30 나. 납부장소 : 세원은행 한국지대 은행본점 다. 수 교 액 : ① 등록비 10,000원 ② 등록금 14만원 64,000원 ③ 기 2월말 (138,000원), ④ 4월말 (296,000원), 6월말 (394,000원) 라. 교외서 거주, 교외편연구사, 세원은행 한국지대 은행본점참조
6. 수강신청	가. 신청기간 : 2002. 6. 3일(월) ~ 6. 7일(금) 나. 신청절차 및 방법 : 연세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수강 신청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신청이 다르면, 등록하지 않은 등록금으로 수강신청불가능함
7. 2002. 개입학기 시험 결과	가. 성적표 : 2002. 6. 11(화), 인터넷 게시 나. 재검 고사방법 : 수강신청결과가 나옴 : 2002. 6. 13(목) ~ 6. 14(금)
8. 수강자격	가. 2002학년도 제1학기 현재 재학생 나. 휴학생 및 복학생으로서 7개 학기 동안 13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수강할 수 있음
9. 폐교·교과별 방학식 따른 수강신청 관련 및 수강자격 변경	가. 수강료 무효처리 대상자는 교에서 제출하는 : 교무반과에서 수강자격변경 통보는 수강료 환불 불가함
2002. 5.	
유니캠팩스 2002학년도	
중요연구구장	

[illegible]

외대학보 445



"신자유주의 반대"
"주5일 근무 정책"
"민중생존권 쟁취"



"자본주의 반대"
"반전반핵평화세계구축"
"조선노동당 반대"

"지금 급진적이며 좌파적인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4월 3일 대선후보 출마의견에서 한 정부를 '좌파적 정권'으로 규정하며)
"독재적, 좌파적 발상이다. 노 고문은 자신의 언론권과 정계성을 분명히 밝히라"(자민련 정

공공의 적, 자본주의를 넘어서라

좌우논쟁과 진보정당

진적 대변인, 4월 5일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언론 국유화 관련 발언이 일자)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좌파'의 공통점이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말대로 '진 북세력'을 의미한다는 것. 좌파=진북=발견이=나쁜 것, 이 지루한 공식으로 무장한 발견이라는 무차별적인 '핵공격'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진적 좌파'라고 지칭하는 조직이 있다. 한 당의 강령을 보자.

"외세를 물리치고 반민주적인 정치권력을 몰아내어 민중이 주인되는 진보정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등과 해방의 새 세상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민주노동당 강령서)

좌파, 그저 '별다른 캠페인' 자금으로 쓰였던 이 단어를 당당히 자기 정체성으로 표방하고 나온 정치조직들이 있다. '노동자 중심의 계급연합 정당이며 민주정당'이라는 '정체'의 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빈민·농민 등 다른 계급과 힘을 합쳐 '자유롭고 평등한 민중의 해방 세상'을 만든다("진보정당을 말한다", 장상환 지)는 진보정당이 그것.

진보정당이 생겨난 계기를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임금 10%인상'이라는 회사의 조치를 얻어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국가에서 갑자기 물가를 10% 올려버린다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투쟁한 대가는 언제까지 없어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투쟁함으로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가 부족하다는 판단, 정치투쟁이 같이 이뤄져야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고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조직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방 후 진보당과 민중당으로 이어졌던 진보정당의 흐름은 97년 '국민승리21'과 98년 '참정진보당'으로 나뉘어 현재 각각 민주당(진보당)과 '사회당'으로 그 줄기를 유지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대표격으로 불리는 민노당은 '국민승리21'이 확대·개편된 정당이며 2000년 1월 창당했다. 창당 당시 9만여명이었던 당원은 현재 2만 5천여명으로 줄었다. 지난 대선때 '국민승리21' 후보였던 권영길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 다시 출마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13 총선에서 이 미 출범한 서울시장 이론 후보, 경기도지사 김준기 후보 등을 비롯 약 200여명의 후보를 낼 계획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자본주의와 정권을 맡고 있는 민노당은 김대중 정부의 대량해고와 기존 정치권의 싹새에 맞서 노동자·농민·여성세력 등과 함께 한다고 자임해

왔다. 그리고 상임입대치호보법 제정, 이자제 한방 부활, 부패방지법 입법결정 등 민생발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다른 진보정당인 사회당은 98년 창당한 '참정진보당'의 후신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원용수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자본주의 반대", "반전반핵 평화세계 구축" 등을 기치로 내걸어 민노당과 비슷한 이념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의 조선노동당을 반대한다는 것이 큰 차이이다. 이 때문에 최근 진보진영운동의 통합의 여파가 이는 가운데 두 당이 통합 또는 후보단일화 등 연대 노력을 했지만 조선노동당에 대한 입장을 일치시키지 못해 실패했다. 민노당은 이와 관련 "조선노동당을 반대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는 불가능하다. 평화체제 구축, 통일과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선 노동당은 대화와 협력의 상대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이런 두 진보정당에 대한 노동자와 일반 국민들의 성원은 미약하다. 지난 2000년 4·13 총선에서 민노당은 전국적으로 11.8%의 지지를, 사회당(당시 참정진보당)은 0.6%의 지지를 얻었는데 그걸로 본다면, 진보정당은 그들이 중심으로 삼는 노동자들을 대거 당원으로 끌어올려 조직을 확대하고 당내 민주화를 도모하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양창호 기자 hufshan@hanmail.net

우리학교 진보정당 활동 현황

아직은 미비한, 그러나 희망은 있다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40여명, 사회당 1명.

우리학교에 대한 진보정당의 성격과, 정식으로 당원이 된 숫자가 50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부터 40여명(민노당) 40여명, 사회당 1명), 용인대부터 1명(민노당, 사회당 1명), 사회당 1명), 하지만, 그들엔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서울대부터 진보정당연구 동아리 혼우리 97년 9월, 민노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 창당에 맞춰 그에 대한 지지활동을 시작으로 우리학교 진보정당 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후 '민노당'과 '대 학생위원회'가 건설됐고 올해 '다함께'의 대모임(대중 집결, 이하 다함께)으로 명칭을 바꿨다. 하지만 올해 예정된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노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민노당 학생위원회'(이하 학

생위원회)로 개명하고 조직확대를 논의 중이다.

학생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은 6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6·13 총선부터 8·15 재보선, 11·17 대선까지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활동을 계속하고 더불어 당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한다.

다함께 외대 운영위원회이며 민노당 당원인 정진호(서양·영어 96)은 "대인없는 인터넷(ani)은 아니지만(민노당 후보에 대한) 지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것"이라며 학생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편, 다함께는 5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총학생회와 대학원총학생회, 공동주최하는 난상토론 '노(도)풍인가, 노(도)풍인가'를 준비 중이다.

소개 - 월간 '다함께'

다른 세계를 향한 외침... '다함께'



우리학교 진보정당 활동의 중심지인 '다함께'와 '대모임' 회원 중 상당수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2001년 5월 창간한 이 인터넷을 창간 1주년을 맞았다.

"다함께"는 2000년 11월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세계 자본주의 반대위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던 구호 "투쟁상황 (투쟁 상황)을 우리말로 옮긴 것. 노동자 자본 해방을, 남자는 여자를,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이윤지상주의에 반감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잡지"(다함께 창간호)를 표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어려운 조건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의 정치와 노동자 운동

의 결실을 위해 창간한 것이다.

"다함께" 영역에서 반자본주의·반전쟁에 대한 열린 주장으로 노동자 계급의 의식적인 연대를 강조하고 다른 세계를 만들어 나가려는 사람들이 만든 잡지"라는 창간정신은 홍세호(한겨레 편집국 기획위원)씨의 창간 1주년 격려사에도 그대로 배어있다.

"95년 프랑스에서 신자유주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진보적 노동자들과 지식인 모두가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다 함께 써왔던 투쟁정령 우리도 정파의 차이를 뛰어넘어 '다함께'의 가치인민주 수구 보수세력을 이념으로 끝내자."

최근에는 9·11 테러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음모에 맞서 줄기차게 전쟁반대 기치를 내세우고 있다. 9·11 테러 직후 발행된 2001년 10월호의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11월호(여러 명사들의 반전선서), 2002년 1월호("끝없는 전쟁?"), 3월호("이러니, 미국의 다들 표적"), 4월호("해의 속, 해의 속")

월간 '다함께'는 기업광고와 협찬을 일절 받지 않으며 독자들의 구독료만으로 운영·발간되며, 서울대부터 혼우리 동아리 방을 중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wodr11@hanmail.net

"거품이다" VS "지지 대상이다"

진보진영내 노무현 논쟁

보수적"이라고 규정했다.

"다들 말에서 그는 '노무현'의 그 동안의 행적과 현재의 연봉을 볼 경우 기성 보수정당 내의 정치인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개혁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노무현에 대한 지지는 대체로 그 동안 지지 장점이 없었던 젊은 사람들의 지지인데 이것은 거품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그 이유로 "노무현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듯이 수구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 보수세력으로부터 사상과 노선 경계를 집중적으로 받게 될 테니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보수의 방항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거품이 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웃사촌이 편집주간 정종훈 씨도 '진보정치'에 쓴 칼럼에서 '진보/보수 이념논쟁의 중심은 역시 '사회복지'와 '환경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국화'를 달린다는 노무현의 입장은 정치 실마리를 잡는다"면서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거론한 뒤 "(중앙일보가 만든 이념 스펙트럼은) 99년 10까지 우익의 스펙트럼만 있을 뿐"이라고 규정했다. 민노당

노화한 사무총장은 "전체 지원 가운데 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노 후보의 한계가 앞으로 계속 드러나게 되면 비판적 지지자들도 찾아들게 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노 사무총장은 "노풍"의 긍정성을 뛰어넘을 필요는 없지만 진보진영의 정치적 선택은 결국 민노당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비판적 지지자'인 민주노동 공공연명 노광태 정책국장은 "한국사회는 진보는 지역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에 대해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노무현은 이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노 광장은 "민노당이 지방선거에 독자후보를 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대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아 한다"고 주장했다.

재미언론인 진민을 씨는 월간 '노동시대' 4월호에서 '진보진영의' 노무현을 염호하면서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김씨는 "노무현이 진보진영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정치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려면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조직과 돈, 지역과 학벌, 분단의 정치권력, 즉 불건전한 정치문화와 냉전 체제적 특권구조를 타파하는 일"에 노무현 현상이 나름의 기여를 하게 될 것

은 분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비판적 시각은 진보진영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그렇다면 그것은 지지의 대상이지, 진보성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과중한 비판으로 좌절시켜야 할 대상은 '적'도 현재로서는 아니"라면서 "노무현"을 공격하는 세력은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동일한 세력이며, 우리 모두가 현재의 역사적 단계에서 정치적 청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집단들이기 때문에 노무현이 하물거지진 진보진영이 살자라는 것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분석했다.

"한겨레" 소속은 논설위원도 '진보정치'에 기고한 글에서 "이제 오지 않은 진보정당의 바람을 위해서라도 노무현 바람은 쐼지 말아야 한다"면서 "노무현 현상을 폄하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진보를 생각하는 사람이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보정당 또한 색깔론을 신선했다 할 용케나가는 참한 집권기"라고 밝혔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에서 노무현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한편은 비판적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차피 노무현도 보수적인 사람이니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정성태(경성대) 교수는 "경남도민일보" 칼럼에서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행해온 민주당과 노무현의 노선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우익인 기독교민주당보다도



포스코와 유니세프가 이 자리를 채웁니다

지금도 세상 어느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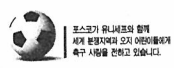
아이들이 뛰노는 자리에는 돌돌 말은 실타래,

찌그러진 강통, 비참해진 낡은 공들이 있들지 모릅니다.

모양이 어떻든 그 자리는 바로 희망의 자리 -

축구는 아이들이 또다른 세상과 만나게 해주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유니세프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후원으로 축구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합산의 소리

글을 발송하다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투고방법 : 학부기(학부생) 2층 학문 또는 전자우편 (edubook@hannam.ac.kr)
지대학보를 읽고 감명받은 분이나 바라는 점들 제언하면 논으로 비변해 주십시오
출신(KAFS)은 Hannam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Arts의 준칭입니다

명수당

대학사회의 슬픈 모습들



박성열
(사학과 교수)

얼마 전 인터넷 야사(野史)에 노벨상과 학위를 받은 일본 과학자의 탈세 사실이 보도됐다. 그리고 같은 날 한국 국세청은 5만2천여원을 증정하던 대금으로 선정한다 고 발표했다.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노벨상 감축에 보강했다는 것이다. 일본 국세청은 노벨상 수상자의 탈세까지 조사해 세금을 추징하는데, 한국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 가운데서 탈세자를 찾아내려 하는 듯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교수나 학자들을 세무사들한테 맡겨두고, 일본의 저런 모양을 보면서 한국의 이런 형편은 다름없다고 하기에 서운한 면이 있다. 일본에 학자로서 국제적 명성을 얻어 마쳐(마쳐)한 부를 축적해 탈세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련데, 한국의 학자들한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2001년도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자인 일본의 노요리 요지(野崎昭彦·63) 나카모리 카오(中尾孝) 두 사람에게 일본 국세청 나카모리사무소는 2000년까지의 과거 7년 간 3천2백만엔의 수입

신고액이 누락됐다고 판정했다. 평생 '유리상자 속의 수업'으로 국제적인 특별 감시를 받아가지 못한 한국의 대부분 학자들에게는 그런 감시에도 한번 받아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한국의 경우, 노벨상 받고 외국 나가 경연해 돈을 받은 교수는 아직 없다. 그렇지 못한 정도의 학자라면 외국에 초청받았을 경우 우리도 세금 추징을 거론할 수준은 못 되는 듯하다. 그래서 그런가, 한국 교수들은 엉뚱한 노력으로 부수입을 올리려고 안달하는 수가 많다. 그 하나가 갑부다. 교수라는 사람이 '갑부 사냥(獵富)'에 나서기도 하고, 학교 총장 선거에 나서는 교수도 점점 더 많아지는 듯하다. 이렇게 된 갑부로서 그 사람들의 하려는 일은 대개 관공제를 정가하는 것만한 의상이 된다. 실제로 어느 총장은 학교에 가서 영수증을 내고 그 돈을 자기 호주머니에 배틀린 것으로 유감없는 것을 증명하느라 일부 교수의 논문 수행까지 역시 수입과 관련 있다. 교수업적

평가제를 시행하면서 발표 논문을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든 논문을 늘려 연구비를 더 받아 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는 소위 국제기구(SCI)에 등록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해야 연구비가 생긴다. 인문사회계도 그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기에 부추긴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수는 자기 연구실에 앉아 연구만 한다고 잘 하는 일이 아니다. 노요리 교수는 "학술과 예술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며 "베토벤과 모차르트를 비교할 수 없듯이 노벨상은 목표를 내걸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앞으로 50년 간 3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겠다는 일본 정부 발표에 대해 그는 "이런 계획은 학술을 왜곡하는 골치잡힌 착상"이라고 통렬히 비판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분야에 그렇듯 '돈'이 쫓기고 있는 것이다. ※ 이 글은 한겨레신문 5월 30일자 12면 칼럼에 실렸던 글입니다.

미국의 핵전쟁 음모를 막아내자

오월입니다.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하게 해주는 생명력 넘치는 달인 지 금입니다. 교정을 분주히 지나 는 우리 학우들의 활기찬 모습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그러나 또한 오월은 어마한 달인 지, 우리는 80년 5월 광우를 기억합니다. 정권을 쥐기위해 무비례한 학살을 자행한 야 만적인 군부정권,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 종한 미국...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평화와 통일의 기 운이 높아져가는 속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정찰기와 암호서 우리 민족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생각해봅시다.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80년 광주학살의 주 범, 폭이 없고 계속되는 미군병력, 노동자·농민, 젊은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치는 신 자우주의 경제침탈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것이어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 구를 불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은 위험 이 아니라 현실의 당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2002년을 전후로 해로 삼았더니 '이북은 악 의 핵'이라는 말문을 서슴지 않으며 한 해를 시작한 미국은 지난 3월에는 대우로의 한미합 동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전쟁행동을 벌여왔습 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발포한 해 해에 검토되고 서는 핵 실험장격의 대상으로 이북을 지목하면 서 한반도 핵 위협의 미국을 실행에 옮기려 하

고 있습니다. 핵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합니다. 핵전쟁에 남과 북이 파로일 수 없습니다. 전 방과 후방이 파로일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핵전쟁에서 이러한 반비탄적인 의지 로 4.19부터 5.18까지 반미반전 결사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애국애국 사범대도 미국의 핵 전쟁도발행동을 막아내고 우리민족끼리의 통 일을 안아오는 길에 가장 앞에 서겠다는 결심 으로 반미반전 단식투쟁을 결의합니다. 이미 등록금 투쟁을 벌이면서 무반의 단식을 진행하 였고 대대적 기간이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핵전쟁도발행동을 막아내 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총장후 보들의 그런 열의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꼈 다. 지난 5년간 미국의 침략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핵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주한 미군은 이미 핵전쟁을 잘 나가고 큰 소리로 호령합니다. 취직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는 것 만큼 어렵 다는 현실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밝게 웃는 우리 학우들을 봅니다. 그 모습에서, 그 웃음에서 희망을 봅니다. 학우 여러분의 힘을 믿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나속진

(사범대 학생회장, 한국어교과 99)

총장후보 토론회에 다녀와서

나는 학생회 출신도 아니고, 운동권 학생도 아니다. 학교문제에 대해 약간의 관심은 있었 지만 그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 지 않다. 그리고 중 총장후보 토론회에 참석했 는데 이 토론회에서 느꼈던 점들을 나누고자 지면을 빌린다. 토론회에서는, 패널로 참가한 학생들이 문제 를 만드는 데 고민한 흔적이 보였고 후보들도 상당히 답변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재단 문제, 등록금 문제, 외대 위상의 추락 등등 여러 방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러한 문제들은 실제로도 캠퍼스 학우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을 결정하는 대부분 시작에서 장 기적인 의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인 영 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사안이었음을, 총장후 보들의 그런 열의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꼈 다. 하지만 나에게 약간의 실망을 주었던 것은 후보들의 상당수도 진지하게 일한 만큼 충동이 진지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내가 보 기에 그 자리에 있던 대다수의 학우는 1학년 학생들뿐, 대부분 신생들의 질문(?)으로 불려온 듯 했다. 다양한 학년이 함께 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야 아쉬움이 남는다. 총장과 외대위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기까지 함 많은 노력과 수고도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의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러한 한 발짝 더 성숙한 총장을 바라면서 한가 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위에서 말

했다시피 비운동권 학생이지만 종종 이러한 행 사에 참여하고자 한다. 총장이 진정 비운동권 의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다면 아들을 배 려하여 조금 넓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으면 좋 겠다. 학생회로서 하는 행사이기에 구호 외치고 목청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평범한 학생 에서는 경장하 경직된 분위기로 다가왔고 1시간 동안 (토론외 시작전) 이러한 행사가 계속 된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부담스러웠다. 학생회 의의의 소의단을 존중하지만 일반 학우들도 편 안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도 일 반 학우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다소 경직된 총 학회의 이미지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 랑들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씩의 권유해 보고자한다. 캠퍼스의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지금 여 기에서 나의 관심과 참여를 필요로 하는 문제 를 의의한다면 이후로도 그러한 삶의 태도는 큰 바탕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토론회를 통해 내 삶의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었기에 또한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 로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켜 보고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자 한다. 다양한 학년의 의의 속에서 한층 나아진 총학회의 문 의으로, 함께 외대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 가는 소중한 경험을 이해보고 싶다.

김지나

(서양 · 영문 99)

학술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현재 외대 발전에 대한 고민은 재단 문제 등 대부분의 것이 제도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 학내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개혁뿐 아니라, 다한 한 축으로 내적 학술적인 성과를 해 가려왔다. 외대 내 전 학생들의 학자투쟁 때부 터 지역학에 대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고, 그 내용들이 커리큘럼변화 등 여러 특색의 학 술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최근 학 생회를 비롯할 때, 학생회 내의 그러한 성과를 은 전무할 뿐 아니라 고민조차도 사라진 것 같 다. 이에 학생회, 특히 과학학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다. 일단 건 공에 대해 관심과 지식이 좀 더 많은 북학생 들과 과학의 전공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하게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 아가야 할 것이다. 과학학생은 이런 조그만 성 과물들을 다른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는 매체 를 생산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과 강의실에서 학우들과 만나면서 나누줄 수 있는 소지품이나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또 이렇 게 쌓인 학술적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만 들어 줘야 한다. 조금 더 고민할 만한 단체 혹은 총학 차원 에서도 규정이 큰 학생회나 강연회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등의 매체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총학회가 있는 '외대' 간과 지역역 구' 등의 홈페이지가 마땅치아 각자에 계시관 들을 담당해 주자. 각자에서 과에서 생산된 내 용들을 자라자처럼 쌓아 나가야 한다. 모임들이

진무하다면 적어도 전공대상학과 관련된 언 론의 기사들이라도 자라자처럼 모아나가야 한다. 물론 외대교수님들과 동문 교수님들의 좋은 글 등도 자료, 나아가서는 논문자료도 소개할로 서 외대 학술 연구의 보고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새해가 밝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자료 들부터 원문 기사까지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이 모여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큰 규모의 학술행사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 말 외대가 외국학과 관련되어서 우리나라의 중 심이 될 수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물론 1~2년 이내 이루기 어려운 사업이다. 과 학생회와 함께 고민하고 해 흐름을 주도해 야 한다. 총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도 흐름 을 이루지 못한단 중구난방으로 흘러서 버린다. 그리고 재단 개혁과 민족적인 총학생들은 이런 흐름을 잡아가는데 필요조건이다. 이런 흐름 을 바탕으로 외대의 학적 특성도 찾아낼 것 이고 학교 발전의 길도 보일 것이다.

하남성

(통영 · 중국어 95)

아트 바이트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명수당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합산의 소리

지국 : 010-4110-30 학생, 직원, 보도/주제 : 제한 일음/매주 : 2004 원고지 4개/면/마감 : 매주 금요일 지정

비평 · 소설 '울프강의 세월', '눈보라'

'가짜'가 만들어 가는 '진짜' 세계



‘울프강의 세월’과 ‘눈보라’에 각각 담겨있는 소설 ‘눈보라’의 검은 할라리(김소진 지)와 ‘바늘’ (전윤영 지).

1. 우리는 누구인가?

발췌 대학생활을 한 지 8년째다. 이제 곧 졸업이라는 말인데, 좀 과장되지는 않았나고 말할 지 모른다. 하지만, 군대 2년 + 휴학 2년 = 4년이고, 지금까지 3년을 다녔으니 맞는 말인 것이다. 쉬는 기간에도 꾸준히(?) 학업을 나갔으니 말이다. 나름대로의 진로가 확정된 이 졸업에 나는 얼마나 대학생활을 하며 자랐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나의 경우는 정적으로 돌아 리 활동한 시간을 보낸 셈인데, 남들이 한다는 것은 다 하고 지냈는지는 모르겠다. 놀람도 많고, 동아리 회장도 했고, 연수는 못 가봤지만 별 별 아쉽지는 않다. 그런데, 정말 대학생활은 무엇일까? 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울프강의 세월’(김소진 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제목에서 보지만, 울프강이 누구냐고 물을 수 있다. 본문에서는 Wolfgang은 ‘Wolfgang Amadeus Mozart’의 약자이다. 여기서 그는 어떤식으로 ‘눈개’가 되고 말았는지 알고 있다. 혹시, 어떤 집적으로 바람둥이의 이야기라고 할지도 모른다. 어느 면에서는 맞다. 그리고 이 소설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가짜’ 대학생활의 이야기’인데, (다양한 종류의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우리가 얘기해야 할 부분은 바로 ‘대학생’에 대한 얘기인 것이다.

지방대학을 전전하면서 강의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강사 ‘용수환’은 어느 날, 대학 회계장에게 재의를 받게 된다. 학교발전 기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까 재계정보가 든 쪽지를 건네 받게 되는 것이다. 재계도 교수가 될려면 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머뭇거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의문이 고개를 돌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한다. 과연, 이 돈을 내고 교수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간강사로서 살아야 하나. 전자는 현실이고, 후자는 양심에 따른 행동이다. 그런데, 그 곳에서 대학동맹인 강사들을 보게 된다. 그는 자기 대학시절에 가짜 대학생이었던 것이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학생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며, 술도 잘 마시고 또한 나중에는 운동의 이점까지까지 변모한, 급기야, 공장에 위장 취업했어라면서, 그는 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런 그가, 지방 도시의 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를 직접 만났으니, 그는

만남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를 호위하는 아케를 로부터 늘씬 두들겨 맞는다. 김으로 차를 들면서, 그는 주머니속의 재계정보가 든 쪽지를 확인하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게 이 소설내용의 전부이다. 결국은, 그도 타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80년대를 살았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다. 언제나 어떤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면서, 즉 군사정권이라는 전체주의에 대항하면서 결국 전체주의에 휩쓸리게 되는 인간군상들.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기도 전에, 나라는 문제의식도 없이 바로 ‘우리’라는 것으로 가버리는 것. 그것이 나라는 애기는 아니다. 단지, 아이들으로 보는다는 것이다. 허 끝에서 멀도는 것들. 그 선배의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 ‘가짜’ 대학생의 관전대의 육안으로.

“나기 잘 알잖아. 난 강사네 아니 울프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80년대 내내, 꽃 같은 이 시대와 신 년을 보내는 것보다 나 아닌 어떤 학생이 바깥에 설혹 내 이름이 어떤 강사네가 아니고 일선에서 불리던 차지. 어느 게 진짜 나일까 물어보면 그 세월엔 다 순결한 청춘도 영혼도 추위로 고통만 채 다 묶여 있어. 차라리 내가 나를 폭로해버렸던 것보다 나은 아팠을지도 모르지만 난 내세워줄 이름이 없어라지 않았잖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어. 쓸데없는 것 이지만, 아무런 해도 보상이란 수 없지않아.” (눈사람 속의 검은 할라리, 121-122p)

그러면, 다시 ‘진짜’ 대학생 용수환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게 가짜 학생 강사네에 관해 내가 알고 또 기억하고 있는 사실의 전부이다. 아니 어쩌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이름이 강사네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의 주민등록증을 본 적이 있던 하지만 아직도 내 기억에선 그를 순박한 얼굴로 알고있지만 현실과 부딪혀서 세상 밖으로 사라진 인물로 기억하고 있는 판에 그와 선배네들 차지 않는 점이 쏘아라기 무슨 소용이 있었는까? 그렇게 따지면 또 가짜는 무엇이고 진짜는 무엇일까? 말인가? 농구장에서 본 그 사내가 울프강이랑 보지도 않던데 왜 나는 자꾸 그 사내가 울프강이라고 믿고 싶어지는 걸까? 그가 학생 신분이라서라는 의 미에서 가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인생의 다른 부분부터도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 (눈사람 속의 검은 할라리, 118p)

둘째, 대학생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소설에서는 주인공보다는 조연인 ‘강사네’가 더 많이 부각된다는 점이다. 이름을 봐도, 주인공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다. 이상하다. 어째서 일까? 진짜 대학생인 주인공이 불리라고, 가짜대학생이 전면에 나와 이야기의 중심을 떠난다는 것이다. 역자전대인 이 소설은 바로 그 역에서 해당하는 부분만 주인공이 나와 이야기를 이끌고 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시간 강사’들의 현실이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수요가 차서 있을 수가 없고, 지방을 전전하며 강의를 풀어가야 하는 우리대 선생님의 모습이네. 연구는커

녕, 먹고 살기위해 이곳 저곳을 전전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작 교수가 될려면, 좀 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사회. 대학이라는 곳이 현실에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라면, 그와 반대로 그 대학의 내부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폐쇄적인 곳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짜란 무엇일까? 가짜란 진위를 향한 열망과 동경이 들어 있지만, 절대로 진자가 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가짜와 진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서로를 떼어놓고는 존재할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는 가짜가 좀 더 많이 있을지 않을까? 또한, 어떻게 보면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과연 그 차이는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가짜가 이 세상을 떠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것을 전문적인 소설인 ‘눈보라’에서 한 번 들어보자.

2. 진짜 혹은 가짜

남자들에게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이 (특히, 20대에서 30대까지의) 어쨌든 필 수다. 일단 진짜지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붙어 다고 있는, 결코 작은 삼각형 모양의 브로치 중 앙에 달고 있는 PRADA 라는 가방은 없 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이런 대부분이 모조품 이다(이제 이미테이션이라고도 한다). 다들 이것을 왜 들고 다니는 것일까? 쉽게 말하자면, 진짜와 발판 차이를 알고, 또한 실용적인 면에서 보자면 가볍고, 간편하기 때문이었지, 또한, 멋도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는 이 PRADA 라는 것이 진짜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 아무래도 이런 가짜의 대 명사가 아닐지는... 이런 작품들(‘가짜’ 혹은 ‘가짜’와 같은 뜻의 말이다)은 고가 명품브랜드의 디자인을 복각한 것이라 따라 만든 물건들 지만이다. 작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일단 작품’ 상 품은 시중에서 한 가격으로 흔히 구할 수 있으 나 한눈에 식별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 면 ‘진짜 작품’은 보통 사람들의 욕망으로는 ‘진짜 명품’과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 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진짜 작품’의 가격 은 ‘진짜 명품’의 1/10 정도로, 일반 국내 브랜드 의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진짜 작품’의 경우 명품 매장에 돌 고 가서 수상을 맡지도 모를 정도로, 어지간한 전문가들조차 무엇이 원본이고 무엇이 모조품 인지 식별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소위 명품 이라 불리는 외산 메이커 제품들에는 (특히 사 벨, 루이비통 등) 유독 한국사람들이 집착한다 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열여섯 있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고향은 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바비라를 찾는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내면의 부족함을 외면의 화려함으로 매꿔볼 수 있다는 자살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

‘눈보라’는 가짜 부리보론이다. 물론, 이런 실재하는 않는다. 아니, 실재했음에도 모르 겠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었다. 이런 소설상의 이야기이고, 가짜다. 이런 부리보론의 빈껍데 겹과라. 그래서, 주인공인 ‘용수환’ 그는 조

동학과 삼금반에 재학중이라는 언제나 이 가 짜를 선호하며, 돈을 아끼고 이질 사라는데 용 돈을 쓰곤 한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와 단 둘이서만 살고 있다. 어머니는 배 의 녹을 때는 일을 하고 있다. 배경은 부산 영 도다. 바로 영화 ‘친구’의 무대가 되기도 한 곳이다. 여기서는 재미있는 대화가 여러 오 간다.

우선, 영도대리를 떠났다고 있는 것은 무엇 이냐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음 아닌 ‘담 처’라는 물고기로 한다. 주인공이 땀집 앞까지 가서 아버지가 그것을 봤다면서 사실임을 주장 한다. 대리를 떠났다고 있는 것은 정말 ‘담 처’ 일까? 그런 넘어가기로 하자. 두 번째로, 주인공의 친구는 나옴기 상로, 그러니까 가짜 나옴 키상표를 사 오도록 해 줘라. 그런데, 그 친구 는 전혀 개치 않는다. 주인공이 고건 가짜라고, 고건 진짜 나옴키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 친구는 맞는다. 너도 가짜 부리보론을 먹는 것 과 내가 가짜 나옴키 상표를 오오는 게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주인공은 그래도 눈보라론은 뭔가 다른게 있다고 내심 자신감을 갖는다. 하 지만, 그를 언제나 놀려대던 잠집 아이들을 만 나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아, 그 소녀의 아버지는 가짜 정장이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도 가짜학부유망자를 하다가 갑작 에 빠져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도 후 시 가짜가 아닌지 모르겠다던 웃음을 흘린다. 그러나, 여기서 이 소녀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게 된다. 한 번 들어보자.

“나 가짜 휘발유에 꽤 많이 들어간 게 편지 아냐?”

소녀가 느닷없이 물어왔다. 나는 머쓱해져 부리보론을 한입 베어물고 대답한다.

“물 아냐?”

후후후, 짧고 경쾌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스 쳐 지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차가 가겠노? 그랬다가는 담 집 통풍기부는데, 그 속이 찼로 많이 들어 있 는 거는 진짜 휘발유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 나?”

마리를 끄덕이던 했지만 그게 무얼 의미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가짜에도 진짜가 들어 있 다는 말인가? 진짜로 가짜를 만든다는 얘긴가? ... (눈보라론, 100p)

그렇다. 진짜와 가짜는 서로 통하는 것이다. 그 둘은 상호전제적이 아닐까. 진짜라는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가 있을 때에 야, 아니 오히려 진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 지 못할 때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닐 까. 진짜와 가짜를 배반된 한 모습으로 바로 가 짜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 까.

박광수

(서유림 · 불어 85)

일상적인, 너무나 일상적인 그러나...

감춰진 욕망의 분출



우리는 하루하루 무엇하는 일상을 아무렇 지도 않게 받아들이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그저 무수한 가능성들 (이름대면 하에 일어나서 바로 세수를 하 지만 어느 순간 정장에서 종이 담긴 머리 위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이 구체화되면 서 풀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상상이 담긴 앞 에 펼쳐진다.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코엔 형제가 다시 한 번 우리를 놀라게 할 영화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에서는 바로 이러한 우리 겉의 수많은 가능성들이 주인 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어떤 것이 사건의 도화선이 되고, 그 후의 일들은 주인공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상 황이 전개되어버린다. 그러나 코엔 형제의 영화 속의 재미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기인 하는 것이고 그 전개방식이 무척 독특하고 유미러스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들의 첫 작품 ‘눈의 저격자’는 전미비평가협회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또다시 ‘바 톤 링크’로 세계를 놀라게 만든 뒤 (그러나 이 작품은 코엔 형제의 필모그래피에서 약 간 비켜나온 듯한 느낌을 주며 그 내용 이 해가 상당히 힘들다), ‘고교’ 그들의 이름 을 더 널리 알렸으며 ‘그 남자는 거기 없었 다’로 우리와 조우하고자 한다. 데뷔 때부 터 원인 조엘이 감독을 맡고 동생인 에단이 제작을 담당하며 각본은 공동으로 쓰는 독특한 작업방식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들은 장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로 이야기를 비틀어내는 재주가 놀라워라 만 치 가능하다.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는 느 외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들이 만들면 느 외로도 못가!

안방사 에드(빌리 밥 손튼)의 삶은 무료하 고 지루하기 그지 없다. 낮고 푹튼 듯한 목소 리로 나레이션을 읊어내는 빌리의 목소리 처럼, 그는 어느 날 드라이 크러닝 사업에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손님의 이야기 를 듣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와 그 램고 그런 사이였던 빅 데이비에게 합작 전 지를 쓰고 돈을 뜯어낸다. 그리고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안방사 역을 맡은 빌리 밥 손튼의 시종일 관 다문되어 있는 표정과 목소리는 안젤리 나 홀리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이 며 영화적 상황과 기묘한 조화를 이룬다. 조엘 코엔의 부인인 프란시스 맥도먼드는 안방사 에드의 아내 도리스 역을 맡아 열연 했으며 그 외에 배트맨의 역을 맡은 코엔 형제 가 드리는 보스이다.

“우리는 안방사인 그 남자에게 관심이 있 었다. 우리는 그의 하루하루가 남의 머리까 락을 자르고 또 잘라야 하는 안방사로서의 일상과 똑같은지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 그 리고 그것을 범죄 이야기의 배경으로 만들 고 싶었다.”

내가 그들 코엔 형제에게 놀란 것은 어떻 게 이바소 밖에 걸린 포스터 한 점을 보고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가하는 점이다. 확실히 통찰력만 요소는 감독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일상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코엔에게는 한 인간 안에 감춰진 욕망과 그 욕망의 분출,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 전개로 휘르르 풍풍 ‘눈의 저격자’가 그들의 코엔 형제 노외로로 탄생할 수 있게 했다.

많은 주변의 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한 번쯤 쳐다보길, 그러면 뭔가 달라 보일지도 모른다. (‘바톤 링크’의 출연진 박지현, 당 신 방의 출연진 박지는 그냥 출연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제5회 칸느 영화제 감독상’이라는 수식 어가 붙은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단란 상 영이라(대체로 하이라트 나다)서만 상영 중이다.) 코엔 형제의 기묘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자들이여, 기회를 놓치지 말자이다.

손수호

(영화모임 ‘올림’, 시화 · 시낭 00)

www.ihufsan.com에 다 있습니다

ihufsan
나기 만드니, 신재현, 박지현, 김소진

대학소식
문화생활
사회기획
벼룩시장
학과정보
의대발전을 위한
제안 및 토론회

등등
모든 외대의 News는
ihufsan으로 통합니다